

# 『傷寒論』 大陽病 96條에 근거한 小柴胡湯을 투여하여 호전된 욱지기 치험 1례

이래춘\* · 이자복#

인천 계양구 작전동 3동 614-5번지 태주빌딩 3층 장생한의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51-1 옥과보건지소\*

## A Case Report of Taeyangbyeong Nausea Patient with Soshiho-tang

Lae-Chun Lee\* · Ja-Bok Lee#

Jang-Saeng Oriental medical clinic, 614-5, Jakjeon 3-dong, Gyeonggi-do, Incheon, Korea\*  
Okgwa health center, Rimun-ri, Okgwa-myeon, Gokseong-gun, Jeollanam-do, Korea#

###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Soshiho-tang on an nausea which a Taeyangbyeong patient has.

**Methods :** This is a case report on a male patient who has been suffering from nausea which is accompanied by anger.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oshiho-tang was provided for four weeks.

**Results :** After a series of Soshiho-tang treatments, the patient's symptoms and result improved.

**Conclusions :** This case study showed an effectiveness of using Soshiho-tang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on nausea.

**Key words :** Soshiho-tang(小柴胡湯),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aeyangbyeong(大陽病), Nausea

\* 교신저자 : 이래춘. 인천 계양구 작전동 3동 614-5번지 태주빌딩 3층 장생한의원. Jang-saeng Oriental medical clinic, 614-5, Jakjeon 3-dong, Gyeonggi-do, Incheon, Korea. E-mail : aekii@hanmail.net

· 접수 : 2013년 11월 18일 · 수정 : 2013년 12월 01일 · 채택 : 2013년 12월 18일

## 緒 論

2013년 大韓傷寒金匱醫學會 학술대회에서는 이성준, 임재은 한의사가 육경진단체계에 관한 예비논문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 등에 따르면 『傷寒論』은 大陽病, 少陽病, 陽明病, 大陰病, 少陰病, 厥陰病의 六經病證에 따라 몸의 병리적인 변화를 규정짓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환자를 진단하는 체계를 六經診斷體系라 명하였다.<sup>1)</sup> 六經診斷體系에서 六經提綱은 일차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그 병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되었는지, 즉 환자의 병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욕지기’(nausea)라 함은 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을 말하며 다른 용어로는 오심, 구역, 메스꺼움이 있다. 이는 보통 구토가 오기 전이나 구토와 동반하여 같이 나타난다. 주로 위의 기능 및 활동이 떨어지거나 소장의 운동 변화에 의해 유발되지만 그 외에도 불안,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전정기관의 장애 등 매우 광범위한 기저 질환을 바탕으로 발생한다. 치료는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기저 질환을 밝혀내어 치료하는 것이 주가 된다. 치료제로는 진통제, 위 장관 운동 촉진제, 도파민 수용체 차단제, 항히스타민제, 항콜린 작용제, 스테로이드 등을 해당 질환에 따라 사용한다.<sup>5)</sup>

본 증례의 환자는 욕지기를 주소증으로 본원에 來院 하였으며,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이러한 욕지기는 『傷寒論』의 조문 안에서 ‘嘔’라는 용어를 통해

나타난다. 『傷寒論』에서는 嘔와 吐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嘔는 토사물의 직접적인 외부로의 배출이 제외된 ‘메스꺼움’을 말하며, 吐는 실제로 토사물이 위 장관을 역류하여 밖으로 배출되는 상황을 말한다.

小柴胡湯의 치험례는 그동안 한의학계에서 다수 보고되어 왔다.<sup>8,10,11-14)</sup> 하지만 『傷寒論』 96번 조문에 근거한 치험례는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기존의 증례들과는 달리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大陽之爲病이라는 규정을 진행할 수 있었고, 『傷寒論』 大陽病篇에 기재된 96번 조문과 정확히 부합하는 환자임을 규정할 수 있었던 점이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진단의 과정을 거쳤기에 그 진단 과정과 치료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證 例

1. 환자명 : 안○○
2. 성별/연령 : 남성/47세
3. 키/몸무게 : 168cm/62kg
4. 결혼여부/직업 : 기혼/중소기업 사장

5. 주소증(c/c): 분노, 짜증과 동반되는 욕지기(길가다 더러운 여자를 봐도 욕지기가 나고, TV에 예쁜 여자를 봐도 욕지기 나온다. 심지어 물만 마셔도 욕지기가 나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욕지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수시로 욕지기가 올라온다.)

- 6. 발병일(o/s) : 2013 년 4월 3일경
- 7. 현병력(history) : 초진 날로부터 약 1달 전 양방 병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후 위염으로 진단받고 양약 복용하였으나 별무.
- 8. 가족력 : 별무.
- 9. 과거력 : 별무.
- 10.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 11. 身體 諸般 狀況  
Table 3. 참고
- 12. 진단 및 평가 방법
  - 1) 六經診斷 및 條文의 選定根據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욱지기) 및 기타 제반 증상들을 통하여 선정하였다(Table 4. 참고).
  - 2) 평가 방법  
(1) Test Clinical Symptoms of Functional

Dyspepsia

1998년 대한소화관운동학회가 주관하고 51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기능성 소화불량 증의 증상에 대한 다시설 연구에서 정의된 항목 중 5번 Nausea(구역, 오심)와 13번 Anorexia(식욕부진)를 선택해 조사했다 (Table 1. 참고).

(2) GSRS(위장관 증상 등급산정 척도)

1988년 Jan Svedlund에 의해서 보고된 scale로서 PUD 및 IBS의 증상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위장장애증상의 정도를 판별하는 설문지이다.

GSRS의 총 문항은 15개이며, 각 문항마다 0점, 1점, 2점, 3점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소화기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증례는 문항 중 5번, 12번을 선택해 사용하였다(Table 2. 참고).

13. 치료경과

Table 5. Table 6. Table 7. 참고

Table 1. Test Clinical Symptoms of Functional Dyspepsia

점수	
5. Nausea, 구역(오심).	0 = Grade 0 = 없다. 1 = Grade 1 = 아주 조금 불편하다. 2 = Grade 2 = 약간 불편하다. 3 = Grade 3 = 웬만큼 불편하다.
13. Anorexia, 식욕부진.	4 = Grade 4 = 꽤 많이 불편하다. 5 = Grade 5 = 아주 많이 불편하다.

Table 2. 위장관 증상 등급산정 척도(GSRS)

항목	점수
5. 오심과 구토.	0 오심 없음.
	1 수시로 나타나는 짧은 기간 동안의 상태.
	2 빈발하고 연장된 오심, 빈발하는 구토.
12. 무른 변.	0 정상적인 정도.
	1 다소 무른 변.
	2 흐르는 경향이 있는 변.
	3 물 같은 변.

Table 3. 身體 諸般 狀況

1. 食慾	입맛이 없음.
2. 消化	아침부터 미식거리는 느낌.
3. 口渴	없음.
4. 汗出	정상.
5. 大便	대변 하루 1~2회의 묽은 변.
6. 小便	하루 4~5회, 정상.
7. 寒熱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세가 수시로 있음 / 4~5월 환절기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음.
8. 頭面	별무.
9. 呼吸	기침을 자주함.
10. 胸	별무.
11. 睡眠	별무.
12. 身體	항상 목, 어깨가 아픔. 심해지면 한의원에 침 치료차 래원.
13. 婦人	없음.
14. 스트레스 대응 방식	1. 정신적으로 하루 종일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하청 납품 기한에 늘 시달림. 외국 종업원들과 말이 안 통하여 답답. (‘아후 답답해.’ 형태의 짜증을 반복하게 되었다.) 2. TV에 예쁜 여자만 봐도 욕지기가 발생. 자신은 힘든 상황인데 TV 속에서 연예인이 속도 모르고 웃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짜증의 표출.(진찰 중에도 ‘에이 씨!’ 하면서 짜증을 내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4. 六經診斷 및 治療經過

2013년 05월 03일	
육경진단	1) 평소 쾌활하며 활동적이고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대답함.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흥분(짜증)상태임.(脉浮 <sup>2)</sup> )

	2) 뒷목, 어깨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고 한의원에 침 치료자 내원도 잦음.(頭項痛) 3) 환절기에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고 기운이 없는 느낌, 주소증인 욱지도 4월 환절기에 더 심해짐.(惡寒)
조문진단	1) 과거력 없이 초진 1달 전부터 병의 시작이 명확함.- 傷寒 2)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세.- 往來寒熱 3) 메스꺼움이 아침부터 시작되며 아침 컨디션이 안 좋음.- 胸脇苦滿 4) 입맛 없음.- 默默不欲飲食 5) 화남, 짜증과 욱지기가 동반됨.- 心煩喜嘔 6) 기침을 자주 함.- 或咳
진단명	㉮1. 大陽之爲病, 脉浮, 頭項強痛, 而惡寒. <sup>3)</sup>
관련조문	㉮96. 傷寒五六日, .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胸下痞鞭,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小柴胡湯主之. <sup>3)</sup>
처방	小柴胡湯 (1일 3회 복용) [처방구성 및 1일 용량] 柴胡 16g, 黃芩 6g, 人參 6g, 甘草 6g, 半夏 6g, 生薑 6g, 大棗 6g <sup>3)</sup>

재진일	小柴胡湯 복용 28일 후	4주 복용 후 한 달여 지난 시점(7월 13일)
치료경과	1) 욱지기의 발생 빈도가 하루 평균 10회에서 2회 정도로 크게 감소.(Table 5, Table 6. 참고). 2) 짜증과 화의 발생 빈도가 크게 감소. 초진 시 의사의 지도에 의해 환자가 스스로 조절함. 3) 환자 스스로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느끼게 되었고 환절기의 불편 증상들도 호전됨. 4) 입맛이 이전보다 좋아짐.(Table 5. 참고) 5)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 소실. 6) 기침 발생 소실. 7) 대변 상태 하루 1~2회의 정상 변으로 개선.(Table 6. 참고)	

Table 5. Test Clinical Symptoms of Functional Dyspepsia 점수 변화

	2013. 5. 3	2013. 7. 13
5. Nausea, 구역.(오심)	5	2
13. Anorexia, 식욕부진.	4	2

Table 6. GSRS 점수 변화

	2013. 5. 3	2013. 7. 13
5. 오심과 구토.	2	1(빈발x)
12. 무른 변.	1	0

## 考 察

六經診斷體系를 기반으로 한 치료는 『傷寒論』에 언급된 육경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 후 해당되는 經에 속하는 처방들의 조문을 살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다.

기존의 小柴胡湯의 증례들은 주로 간, 담 부분의 문제에서 기인한 소화기 증상들에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그 중에는 小柴胡湯 원방 그대로가 아닌 개별 약물들이 加減된 증례도 있었다.<sup>8,10,11-14)</sup> 하지만 본 증례는 『康平傷寒論』에 나온 小柴胡湯 원방 그대로를 어떠한 加減 없이 투여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단순한 신체적 증상만이 아닌 心煩이라는 정신적 증상이 같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방 치료 이전에 환자가 양방 병원에서 소화기 자체에만 치우친 치료를 받고 효과가 없었던 과거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실제로 한방 치료 후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큰 호전을 보였고(짜증의 감소) 더 나아가 스스로 心煩(짜증)이 원인임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치료의 외연을 확장해 볼 수 있는 증례가 되었다. 결국 이 환자는 화와 짜증이라는 계속되는 정신적인 자극이 ‘에이씨’, ‘아후 답답해’의 형태로 표출(心煩)되면서 지속적으로 상복부 및 흉곽 부위에 힘을 주게 하여(胸脇苦滿) 욱지기(喜嘔)라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心煩이 喜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문 상의 다른 증상들인 默默不欲飲食(화가 나며 욱지기가 나오니 식욕이 없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往來寒熱(짜증을 내면 몸에 熱이 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寒이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도 하

나의 일관된 과정으로써 이해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정신과 신체 반응의 상관관계는 『傷寒論』의 여타 다른 조문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煩燥, 煩躁, 乾嘔煩, 心中煩不得臥 등) 이 증례를 계기로 인체의 정신-신체의 연관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환자를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단순히 환자의 병증을 치료하는 의술을 넘어서 환자의 삶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1. 이성준, 임재은. 傷寒論 六經과 條文에 근거한 診斷體系 및 臨床運用.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2. 노영범. 傷寒論 脈의 고문자적 해석과 임상운용을 통한 올바른 이해.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3. 이승인. 新古方撰次. 군자출판사. 2012.
4. 장중경. 康平傷寒論.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5. 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6. 오중한, 김복석, 임희용, 김동우, 최빈혜, 허진일, 김대준, 조종관, 변준석. 二陳湯加味方 투여 후 호전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3례에 대한 증례 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 2005;26(3):641-651.
7. 이재성, 정승연, 이진영, 최준용, 정희재, 이형구, 정승기. GSRs에 근거한 전식증상환자 중의 소화기증상 및 과거력에 대한 조사. 대한한의학회. 2004;25(1):198-204.
8. Osamu NAKAJIMA. The Effect of

- Shosako-to on Chronic Gastritis.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46(4). 1996. 539-545
9. 박종오, 금성훈. 傷寒論 中 嘔吐와 關聯된 條文에 對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7;6(1):291-312.
  10. 김태희. 소시호탕가녹용(小柴胡湯加鹿茸)이 마우스의 혈청 ALT와 간조직(肝組織) 과산화지질(過酸化脂質)에 미치는 영향(影響). 대한한방내과학회. 1995;16(2):1-8.
  11. 이재은, 허수정, 김현진, 조현주, 김혁. 급성 바이러스성 A형 간염의 한방치료 5례에 관한 임상보고. 대한동의생리학회. 2009;23(6):1480-1485.
  12. 신상만, 이장훈, 우호정.茵陳四苓散과 小柴胡湯이 AVTI로 誘發된 膽汁鬱滯性 肝障礙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의학회. 1996;17(2):214-226.
  13. 최서형, 심민, 심운섭, 최영규. 간내 담석으로 간 부분절제 수술 후 발생한 황달의 치험 1례에 관한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 2005;26(3):634-640.
  14. Chang-Gue Son. B형 간염 감염에 대한 한방 치료 효과. 대한한의학회. 2009.